

편집과 제작은 세계적 수준... 수출확대로 돌파구 찾아야

# ‘색깔있는’ 기획에 승부 거는 미술출판

미술작품 대중화의 유일한 통로인 미술출판. 회화·조각·공예·디자인·건축·서예 등 미술의 각 장르들은 오직 책을 통해서만 확대 재생산된다.

그러나 작품을 밑에서 광장으로 옮기는 일은 지난한 과정의 점묘화이다. 기획에서 편집·제작을 거쳐 판매에 이르는 출판활동 전과정이 어려움 투성이다. 미술출판인들은 “미술출판물의 발행중수는 일반 단행본보다 최소한 3배로 계산해야 된다”고 입을 모은다. 적어도 서너배 이상의 돈과 손이 필요하지만, 투자액에 턱없이 못미치는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어 고전하고 있다.

미술출판물은 ‘하드웨어’에 관한 한 당대 최고의 수준이다. 종이와 잉크에서 인쇄기까지 최고급의 것이 동원된다. 따라서 일반 출판물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선도역을 담당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귀족출판물이다.

## “서재에 미술관 한 채를”

출판인에게 높은 성취감과 동시에 높은 위험부담을 주는 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미술출판사는 자주 명멸했다. 미진사 김현표 사장은 “머리가 나빠서 미술출판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한다. 그의 말마따나 고집스레 외국의 길을 걸어온 일부 출판사들이 더러 번창했고 더러 명맥을 유지했다. 아무리 애정이 깊어도 ‘미술출판에 손대면 망한다’는 현실 때문에 결국은 손을 떼는 출판인들도 많다.

현재 미술전문출판사는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다. 열화당과 미진사가 그 대표주자다. 각각 71년과 73년에 출판사등록을 한 이후 미술출판의 불모지에서 길게 뿌리를 내리는 데 성공했다. 17년 전통의 예경, 10여년 경륜의 미술공론사 등 몇몇 출판사는 화집출판으로 명성을 쌓고 있다. 한편 대형서점의 미술코너 화집 서가에는 승례문·예림 등등의 이름이 명함을 내밀고 있다.

전문출판사는 아니지만 미술출판에 깊은 관심을 가진 출판사들이 적지 않다. 금성출판사·삼성출판사·동화출판사·중앙일보사 등에서는 굵직한 미술전집을 선보였다. 지식산업사와 범우사의 경우, 엄청난 제작비가 투입되는 도록식 대형 미술출판물을 꾸준히 펴낸다. 시공사는 제작년부터 수익원대의 제작비가 소요되는 화집을 본격적으로 출간, 신홍 미술출판사의 대열에 들어섰다.

그밖에 일지사·문예출판사 등 몇몇 학술출

판사는 한국미술연구의 역량을 보여주는 학술서를 펴낸다. 화랑을 중심으로 한 많은 출판사에서는 팜플렛 형식의 전시도록을 단행본 형태로 출간한다. 개인화집은 ‘시집처럼’ 쏟아져나온다.

바야흐로 미술애호가라면 그의 서재에 루브르 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한 채씩을 들여놓는 일은 어렵지 않다.

열화당(대표 이기웅)은 4만세기 동안 4백여종의 미술서적을 냈다. 국내최초의 미술문고인 550원 정가의 「미술문고」로 시작, 90년대에는 세계적 미술출판사로 유명한 프랑스 ‘에디시옹 드 쉐느’ 등 외국 굴지의 7개 출판사와 공동발간하는 다국적 출판물 「위대한 미술가의 얼굴」에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펠리칸 브리프」 등 외국소설 번역물 베스트셀러를 산출한 시공사(대표 전제국)는 근래들어 대형미술출판물을 연이어 기획, 미술출판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총 5억원이 소요되는 「아트 비방」(생동하는 미술총서)의 발간은 국내작가 55명의 작품을 55권 분량에 담아내는 국내 초유의 사업이다. 3차분 33권까지 출간했으며, 올해 여름 완간예정이다. 그밖에도 「조선시대 화가전집」 「교양미술시리즈」를 펴내고 있다.

세일즈맨을 통한 방문판매방식에 합당한 전집물을 주로 출간했던 예경(대표 한병화)은 90년대 들어 단행본 출판사로 탈바꿈했다. 더

이상 고가의 전집류가 방문판매방식으로 팔리지 않게 된 탓이다. 대신에 다품종 소량판매의 전략 아래 단행본 기획에 열중하고 있다. 협소한 국내시장에서는 예약주문생산방식을 고려중이며, 외국수출에도 크게 신경쓸 작정이다. 「국보」(전14권), 한국복식을 다룬 「KOREAN CUSTOM」, 「KOREAN ART GUIDE」 등은 외국에서도 호평받은 책들이라고 한다.

## 기획에서 유통까지 난관 투성이

바야흐로 ‘이미지와 디자인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어도, 정작 미술출판계에 즉각적인 반사이익이 돌아오리라는 생각을 하는 미술출판인은 없다. 경제성장에 힘입은 미술애호인구의 확대, 학교에서의 미술교육 활성화 등의 외부적 요인 역시 호재로 작용하기 힘들다는 진단이다. 음악기기가든 원음재생을 목표로 진화를 거듭했듯이, 미술출판물들은 원작의 감동을 생생히 전달하는 것만이 유일한 활로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기획단계에서부터 어려움에 봉착한다. 미술공론사 천정 사장은 “기획력이 요구되는 특색있는 출판물은 이미 나올 것은 다 나왔고, 안 나온 것은 외국에서 들어올 것”이라고 말한다. 미술교양물이 아닌 전집물 화집의 경우, 외국원서가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정식 수입업자가 아닌 소위 ‘보따

리장수’들이 고정독자층을 잠식하고 있는 마당에, 수입개방으로 인해 설상가상의 처지에 놓여 있다.

특색있는 기획안이 마련되어도 필자와 자금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지질 선택, 복디자인, 원색 분해 및 교정에 이르는 과정 역시 여타 출판물에 비해 전문편집자적인 능력이 요구되며 몇 곱절의 손과 돈이 든다.

미술출판인들은 기획·편집과정의 어려움은 인쇄·제본과정에서 생기는 그것들에 비해 사소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한국미술출판물의 질적 성숙도가 구미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자체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미술편집자는 “내용보다 기술이 문제”라고 단언한다.

미술출판인들은 특히 제본소에 할 말이 많다. ‘왕자의 몸에 거지의 옷’이 입혀지기 일쑤라는 주장이다. 인쇄소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분된다. 미진사 김현표 사장은 “인쇄기가 우리나라 것이 아니다. 일본이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는 인쇄수출을 많이 하지 않는가”고 반문한다. 전통명문의 인쇄사인 평화당의 최영일 과장도 “제값만 치른다면 외국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작품이 나온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한 미술편집자는 “인쇄기술 노하우의 축적과 기술자의 숙련도에서 뒤떨어진 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 시장의 협소함, 수출로 타개 모색

미술출판 최대의 공적은 시장의 협소함이



미술품은 책을 통해 확대재생산된다. 그 힘난한 과정을 거쳐도 잘 팔리지 않는 게 우리 현실이다.

# “대중을 위한 예술판화의 거장”

## 노신이 읽은 캐테 콜비츠의 작품세계

출판의 전문화를 통해 미술의 대중화를 추구하는 미술출판.

모든 미술작품은 오직 책을 통해서만 널리 보급된다는 점에서

미술출판사는 큰 긍지를 갖는다.

그러나 원작의 감동을 재현하려면

일반출판물보다 몇곱이나 수고롭다.

우리나라 미술출판시장의 협소함은

지속적 성장의 걸림돌이다. 기획력과

수출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다. 미술공론사 천정 사장은 “환갑 전갑 다 넘겨야 2천부 나간다. 미술출판물의 베스트셀러는 3천부 수준이다”라고 전한다. 예경의 한병화 사장은 “영업망을 총동원해도 화집 1질 파는데 몇년씩이나 걸린다”고 한탄한다. 지난 81년에 출간돼 오늘의 책, 한국출판문화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출판계와 학계에서 큰 호응을 받은 「한국문학사」(미진사)는 “12년동안 2천부 팔렸다.”

‘노력은 몇 배, 수확은 몇 분의 일’인 현실에 대한 타개책은 오직 한가지뿐이다. “외국에 수출해야 산다”는 것. 각 미술출판사들은 외국출판사와의 공동출판, 본문의 영문 병기, 국내작가 작품집 기획출판, 외국작가와와의 직계약 등을 모색하고 있다. 미술공론사는 국내작가 작품을 CD에 담아 외국에 선보일 예정이다. “앞으로 2년 안에 승패를 건다”는 각오다.

94년말 현재 우리나라 출판사 숫자가 1만개에 가까운 마당에 미술전문출판사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는 사실은 미술출판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올해는 미술의 해, 매년 5천여건의 전시회 등 미술행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미술출판계는 의외로 답답하다. “미술밖에 모르므로 매년이 미술의 해”라는 반응이다.

—김중식 기자



판화의 거장 캐테 콜비츠의 「자화상」(석판). “그녀의 왼쪽 눈 언저리에는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한편 노신(아래의 사진)은 미술과 판화 관련 책을 많이 펴낸 미술운동가이기도 했다.



한 분야의 대가가 다른 분야의 작품을 보는 시각은 새로우면서도 날카로울 수 있다. 때로는 ‘꿈보다 해몽’이란 비아냥을 듣기도 하지만, ‘동업자’ 끼리는 간과하고 넘어가는 맹점을 잘 짚어내기도 한다. 게다가 문필가의 미술론은 대상작품에 대한 감상과 더불어 글 자체를 읽는 즐거움도 선사한다. 「미라보 다리」의 시인 아폴리네르가 입체파 화가들을 ‘읽은’ ‘미학적 명상’, 지성의 힘으로 위기의 조국을 구하고자 했던 스페인 철학자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고야론’, 몽상가 바슐라르의 인상과 화가 독법(讀法)을 엿볼 수 있는 「꿈 꿀 권리」, 미술평론가이기도 했던 ‘저주받은 영혼’ 보들레르의 ‘화가와 시인’, 그밖에 우리나라 문학평론가들의 ‘행복한 황홀경’의 미술산책 등이 그러하다.

### 노신과 콜비츠의 숙명적 만남

근대중국의 대문호 노신(1881~1936)과 판화의 세계를 독보적인 위치로 끌어올린 천재 여류판화가 캐테 콜비츠(1867~1945)와의 뜨거운 만남은 고양된 영혼끼리의 포옹이라기보다는 20세기초의 세계사적 격동기라는 시대상황의 산물이었다. 콜비츠는 히틀러의 만행과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는 동포들을 좌시할 수 없었고, 노신은 반제·반봉건의 시대정신에

투철하고자 했다. 그들의 사상과 작품은 80년대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적지않은 영향과 암시를 던져주었다.

콜비츠의 판화는 노동자·빈민층과 혁명·전쟁 등을 다룬다. 정물화나 풍경화는 그녀의 작품목록에서 찾을 수 없다.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복체가 가능한 매체에 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작품세계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예술적 양심’을 위해 예술을 회생시키지는 않았다. 자화상의 화가 램브란트와 비교될 만큼 1백점이 넘는 자화상을 그려냈다. 반성과 자기점검에 투철했다는 한 증거이다. 중국 최초로 콜비츠를 ‘발굴’하고 그녀의 판화전을 개최한 노신은 그녀의 자화상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그 얼굴에는 증오와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강렬한 어머니의 자애와 연민이 더욱 깊이 깔려 있다. 그것은 모두 곤욕을 당하고 학대받은 어머니의 마음 자세를 그린 화상(畫像)들이다. 그러한 어머니는 손가락을 붉은 물로 장식하지 않았으며, 흔히 농촌에서 볼 수 있는 시골 여인의 모습이다.”

### 판화, 그림의 일상화·대중화의 첨병

본래 유희를 전공한 콜비츠와 소시적부터

색채화에 관심이 많았던 노신이 판화에 주목한 이유는 “대중이 더 즐길 수 있는 예술”, 즉 귀족적 색채가 탈색된 예술이기 때문이다. 콜비츠가 살았던 시대는 색채화를 복사할 전자복사기가 없던 20세기초였다. 노신은 민중계몽의 한 방법으로 중국목판화 전통의 재발견을 시도했다. 한대(漢代)의 석각화상(石刻畫像), 명청(明清)의 서적에 수록된 삽화 등의 민화(民畫)에 유럽의 새로운 방법을 융화시킨다는 일종의 ‘판화 중채서용’을 주장했다. 그 ‘새로운 방법’중의 으뜸이 콜비츠의 작품이었다.

노신은 콜비츠의 판화를 설명하는 글에서 하우프트만과 로맹 롤랑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한다. “무언(無言)의 묘선(描線)이 나의 가슴과 골수에 와 닿는다” “현대독일이 소유한 가장 위대한 시가(詩歌)로서 가난에 찌든 자들과 민중의 고통과 슬픔을 밝게 비추는다” 등이다. 노신은 한술 더 떠 “예술의 극치”라고 평했다.

- 「캐테 콜비츠와 노신」(정하은 지음, 열화당)
- 「캐테 콜비츠」(카테리네 크라머 지음, 이순례·최영진 옮김, 실천문학사)

—김중식 기자